

건강 칼럼

전파력 강한 '요도염', 재발 위험 낮추려면?

모 아진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비뇨기계 중 하나인 요도는 내부와 외부에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만큼 각종 감염에 취약하다. 타인에 의해 균이 감염되는 전염성 질환의 발병도 흔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적 접촉 등에 의해 생기는 요도염이다.

요도염은 염증성 비뇨기 질환으로 원인균에 따라 크게 임균성 요도염과 비임균성 요도염으로 나뉜다.

임균성 요도염은 그람음성알균인 임균에 의해 감염되는 요로감염증이며 임질이라고도 부른다.

비임균성 요도염은 임질균을 제외한 다른 여러 세균에 의해 감염되며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는 클라미디아, 유레아플라즈마 등이 있다.

전체 요도염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며 남성에게는 특히 임질보다 흔하다.



이 중근

유쾌한비뇨기과 인천송도점 원장

요도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배뇨 시 작열감, 통증이 느껴지고 생식기의 분비물의 증가와 더불어 가려움증이 동반된다. 비임균성 요도염에 걸린 여성이라면 증상이 아예 나타나지 않기도 하지만, 자연 치유될 확률이 희박하고 성파트너에게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권장한다.

요도염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소변 검사가 진행된다. 소변 검사를 통해 균을 배양하여 균이 확인된다면 임균성 요도염으로 진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

임균성 요도염일 가능성을 열어 놓고 PCR검사를 시행한다.

요도는 항생제의 투과가 잘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요도염은 보통 1~2주의 항생제 투여로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임균성 요도염의 경우 원인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경구용 항생제 대신 직접적인 근육주사를 통해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비임균성 요도염의 경우 경구용 항생제만으로도 충분한 편이기는 하나 감염원이 다양하고 원인균에 따라서 효과적인 항생

제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 정밀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남자의 경우 부고환염, 전립선염으로 진화할 수 있고 여성은 질염, 골반염에 더해 불임 등의 심한 합병증으로 진화할 확률도 높으니 주의해야한다.

특히 부부의 경우 서로 성병을 옮기는 핑퐁 감염의 가능성도 높고 자녀 계획이 있다면 향후 신생아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한 명이 걸렸다면 부부 모두 내원하여 치료받는 것이 좋다.

요도염은 흔히 성병으로 알려져 있어 남녀 모두 치료받기를 꺼리는 질환이다. 방지하면 상대방에게 감염시키고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재감염되어 끊임없이 병이 심화되는 굴레에 갇힐 수 있으므로 요도염이 의심된다면 파트너와 함께 진료받아야 재발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면서 치료할 수 있다.

사설

“운전자 위한 타이머 신호기 설치 필요”

교차로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런 가운데 남관우 전주시의원이 “전주 지역에는 보행자를 위한 녹색 잔여 시간 표시기는 설치돼 있지만 운전자를 위한 잔여 시간 표시기는 설치돼 있지 않다”며 “운전자를 위한 타이머 신호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21년 기준 전주시 전체 교통사고 2151건 중 교차로에서 난 사고는 총 1422건으로 66%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의 신호 체계에서는 자동차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지날 때 출발신호 시간이 몇 초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다.

황색 신호가 켜지기 전에 진입해야 할지, 정지해야 할지 몰라서 추돌 및 급제동 상황에 직면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설치된 신호 장치에서 신호 시간 및 시간 흐름을 접속 받아 타이머 신호가 실행되도록 타이머 장치만 추가 설치하

면 된다. 타이머 신호기 도입은 멀리서 달려오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신호의 흐름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행자를 위해서도 적색 신호가 끝나고 몇 초 후 녹색 신호가 켜질지 알 수 있는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경우 지난해 보행 신호등 보조 장치 표준 지침에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가 신설되면서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는 보행자의 신호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요 교차로부터 확대 설치해야 한다. 사고 다발 지역 교차로 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피로 불기 억제 등 교통 흐름과 교차로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전주시는 운전자를 위한 타이머 표시 신호기가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

어느 언론인의 고향사랑

아시아뉴스전북 유병철 대표가 고향인 진안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유 대표는 진안군 백운면 출신으로 현재 전주에 있는 ㈜아시아뉴스전북 대표직을 맡고 있다.

아시아뉴스전북은 디지털시대에 맞춰 취재의 알 권리를 충족을 위해 24시간 생생한 뉴스를 공급하는 인터넷 신문사다. 유 대표는 “많은 분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해 진안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병철 대표는 1971년 전주시 고사동에서 호남웅변학원으로 출발하여 27년 동안 사회교육에 앞장서 온 웅변인이다. 1997년 전주시 삼천동 3기에 호남유치원을 건립·이전하여, 유아교육에 열정을 쏟았다.

25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자연 속 품의 궁전’으로 불리었다. 학원과 유치원에서 배출된 졸업생은 10만 명이 넘는 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인근에 쓰레기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결국 호남유치원은 올 2월 18일 제25회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한편 진안군은 홍삼, 돼지고기, 진안교원 행복상품권, 승마 체험권 등 35종의 답례품을 선정하여 공급하고 있다. 기부자들에게 다양하고 만족도 높은 지역 특산품과 고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 및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답례품을 발굴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한다.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초과액 16.5% 세액 공제를 받고 기부액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는다.

고향을 잊지 않고 관심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기부해준 모든 사람들이 부딪힘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세인트 조르디의 날, 인간 탑 쌓기



2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테주강변에 있는 리스본 발견 기념비 부근에서 카스텔레르스 드 빌라프랑카 회원들이 키랄루나 수호성인 ‘세인트 조르디의 날’을 기념해 인간 탑을 쌓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인 묘지 찾는 사람들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르비우 군인 묘지에서 사람들이 최근 전투에서 사망해 새로 생겨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무덤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 동방정교회 부활절 이후 첫 일요일에 망자를 위한 일주일간의 기도가 시작돼 사람들은 묘지에 음식을 가져와 먹으면서 고인을 추모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